

寶物로指定된

堯明科學文化財들

新 法 天 文 圖 병 풍

寶 物 : 第848號
所 藏 : 속리산 법주사
製作年代 : 1742年(영조 18)
材 料 : 종이에 채색 필사
한 8쪽 병풍
크 기 : 높이 183cm
너비 451cm

「新法天文圖」는 1742년(영조 18)에 관상감에서 제작한 大星圖이다. 이 천문도는 1723년에 괴글러(I. Koegler, 戴進賢)가 작성한 300좌 3,083성의 大星表를 1742년에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金允瑞와 安國寶이 그에게서 직접 배워 그려온 星圖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

8쪽 병풍으로 되어 있는 이 천문도의 제1폭에는 新法天文圖說의 표제로 그 당시의 천문

학적 지식을 510字로 설명하고 그 왼쪽에 태양과 달, 그리고 당시의 망원경으로 관측한 5개의 행성을 위에서부터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수성의 순으로 크기와 색깔을 달리해서 그렸다.

제2, 3, 4 폭에는 직경 165cm의 큰원이 3층으로 그려져 있고, 360 등분의 눈금띠가 메겨져 있다.

이 큰원의 중심에 黃極이 있기 때문에 큰원은 곧 황도이다.

이 큰원의 위 끝에서 중심을 지나 아래끝까지 그은 직선 중 위 끝에서 중심까지 90개의 눈금이 그어져 있어서 度를 표시하는데, 위에 23도반되는 점과 큰 원의 좌우 두 끝을 연결하는 반원으로 적도를 그리고 있다.

따라서 이 큰 원의 좌우 두 끝은 각각 추분점과 춘분점에 해당한다.

큰 원의 중심에서 아래로 23도반되는 점을 새로운 중심으로 하여 2개의 작은 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 세 중심은 적도의 북극이며, 안쪽 圓의 반경

은 23도 반, 맨바깥 원의 반경은 66도반에 각각 해당된다.

제5, 6, 7폭은 위의 세폭과 같은 양식으로 황도의 남극을 중심으로 남천의 별들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도 적도가 그려져 있으나 북극과는 달리 큰원의 아래 끝에서 위로 23도반되는 점과 큰 원의 좌우 두 끝을 연결하는 반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큰원의 좌우 두 끝은 각각 춘분점과 추분점에 해당한다.

제8폭에는 이 천문도 제작에 참여한 관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領議政	觀象監事	金在魯
提 調	李箕鎮	
提 調	徐宗仍	
副 司 果	安國寶	
別 提	李始完	
兼 教授	邊億老	

이 천문도가 언제 어떤 경위로 法住寺에 보존되고 있는지 그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천문도에 앞서 숙종 34년

- …… 우리의 傳統 發明科學文化財는 韓民族의 發明科學의 創造性을 나타내는 값진 遺……○
- ……產이다. 그러나 이들 發明科學 文化財는 그동안 認識 不足으로 빛을 발하지 못해……○
- ……왔다. ……………○
- …… 此際에 文公部가 世界 唯一의 渾天時計등 3點을 國寶로, 水標 등 15點을 寶物로……○
- ……指定한 것은 우리 祖上의 슬기로운 創造精神을 이어받고 全國民에게 發明科學하는……○
- ……民族으로서의 矜持와 自負心을 심어주려는 措置로 評價되고 있다. ……………○
- …… 特히 國寶 및 寶物로 指定된 遺物들은 傳統發明科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天文……○
- ……氣象分野의 遺物과 地圖(之圖)중에서도 뛰어난 것들이었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우리……○
- ……의 文化를 말할 때 世界的으로 자랑할만한 것들이라고 해은 創造的 遺產들이었다. ……○
- ……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값진 國寶 및 寶物들의 內容은 커녕 어떤 모……○
- ……양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에 本誌는 特別企劃探查를 마련, 이들 國寶 및 寶物을……○
- ……探查하여 連載하기로 했다. ……………<編輯者 註>……○

(1708)에 관상감에서 제작된 아담 살(湯若望)의 赤道南北總星圖로 韓國動亂전까지 京畿道 奉先寺에 소장되어 있다가 動亂 때 행방불명되어 불타버린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日本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두 천문도가 관상감에서 제작된 후 절에 소장되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 천문도의 목판본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1807년(순조 7)에 徐命俊이 150여字의 해설을 붙여 간행한 黃道中西合圖이고, 다

른 하나는 1834년(道先甲午)에 泰然齋 金正浩가 간행한 黃道南恒星圖·黃道北恒星圖가 그것이다.

또 몇가지 사본도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크거나 제작방법의 우수성에서 법주사의 그것과 맞먹는 것이 최근 영국에서 보고되기도 했다.

법주사의 신법천문도 병풍은 현재까지 알려진 Kögler의 천문도 중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사본으로 귀중한 유물이다.(※)

參考文獻

增補文獻備考, 國朝曆象考

李龍範, 法住寺 所藏의 新法天文圖說에 대하여, 「歷史學報」, 31輯, 32輯, 1966.

全相運, 「韓國科學技術史」, 1976, 서울.

羅逸星, 朝鮮時代의 天文儀器 研究, 「東方學志」 42輯, 1984.

Needham & Lu, A Korean Astronomical Screen of the mid-Eighteenth Century from the Royal Palace of the Yi Dynasty (Choson Kingdom, 1362 to 1910), Physis, 1966, 8, 2 : 137~162.

(案) 特許·實用新案 出願公開

索引集(83~85年分)發刊 (內)

- | | |
|--------------------------------|-----------------------------|
| ★ 體 制 : 菊倍版 | ★ 面 數 : 4,460面 |
| ★ 紙 質 : 內紙(미색모조 80g), 表紙(하드카바) | ★ 總收錄件數 : 51,906件 |
| ★ 印 刷 : 內紙(청타마스타), 表紙(금박) | ★ 價 格 : 1帙當(3卷)회 원 200,000원 |
| ★ 製 本 : 양 장 | 비회원 220,000원 |
- ※ 자세한 것은 本會 公報普及課(577-1077~8)나 資料販賣센터(568-8263, 8267)로 問議바랍니다